

제목: 축구 이적시장과 가짜뉴스

학과: 외식조리학부 한식조리과학전공 학번:202311218 이름: 황유찬

1. 서론

포스트 트루스 시대 즉, 탈진실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가짜뉴스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가짜뉴스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본 글에서는 축구 이적시장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축구판에서의 가짜뉴스는 이미 축구선수의 사망 소식, 축구선수와 구단과의 불화설, 축구선수 개인의 사생활 논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였다. 축구 이적시장에서도 당연히 가짜뉴스들이 존재하였는데 자유 이적 신분인 선수의 향후 거처에 대한 가짜뉴스, 선수 개인이 자신의 값어치를 올리거나 구단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하는 여론몰이 등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축구 이적시장의 가짜뉴스는 구단과 선수들의 불화나 구단 팬들의 분노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선수 개인에게 수많은 욕설 테러나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축구 이적시장에서의 가짜뉴스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배척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데 스포츠 기자들이 쓰는 가짜뉴스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구단과 선수 개인도 각자의 목적을 위해 가짜뉴스를 활용하며 서로를 이용하여 상생하고 있고 이적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실 요소와 자신의 추측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기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축구 이적시장에서 이적을 예측하는 기사들을 보며 선수의 거처를 추측하는 것도 일종의 재미 요소라는 것이 축구 이적시장에서 가짜뉴스가 필요하다는 측의 주장이다. 반대로 가짜뉴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측의 주장은 가짜뉴스는 구단과 선수의 불화를 일으켜 축구 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선수 개인의 이적 보도에 따라 수많은 욕설 테러와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짜뉴스를 활용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항상 상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축구 이적시장에서의 가짜뉴스가 축구 이적시장에 필요한 요소라는 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글을 쓸 것이다.

2. 본론 제목: 축구 이적시장에 필요한 가짜뉴스와 악성 루머에 대한 대처 방법

과거부터 현재까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축구 이적시장에 대한 가짜뉴스는 모두 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축구 이적시장에 필요한 요소라는 측의 주장은 구단이나 선수 개인이 가짜뉴스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 구단과 선수들도 언론 플레이라는 일종의 가짜뉴스를 적절히 사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종의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다. 또 축구 이적시장에서의 가짜뉴스는 다른 분야의 가짜뉴스와는 다르게 사실을 기반으로 과대 해석하여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도가 무조건 거짓을 보도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축구 이적시장의 구조 자체가 구단이나 선수 개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축구 이적시장에서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에 반대 측은 구단과 선수 개인은 가짜뉴스를 통해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하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에 의해 피해를 입기도 하는 양날의 검이지만 기자들은 가짜뉴스를 통해 구단과

선수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제제 되어야 마땅하다고 반론하였다. 이에 축구 이적시장에 가짜뉴스가 필요하다는 측은 축구 기자들도 구단이나 선수 개인이 피해 입기를 바라며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한 루머들에 대한 내용을 대중들에게 공유하려고 기사를 보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부 부적절한 기자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존의 사실을 왜곡하여 만든 악성루머들을 보도하는데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축구 이적시장에 가짜뉴스가 필요하다는 측은 축구 기자들의 보도 적중률을 통계해서 공신력의 순위를 매겨 더 질 높은 보도를 추구하는 방식, 사설 축구 기자의 보도가 아닌 구단 소속 기자의 보도만 신뢰, 특정 구단이나 선수 개인에 대한 반복되는 악성루머는 고소 조치 등을 대처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공신력의 순위를 매겨 질 높은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를 선별하는 방식은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고 “The Complete Summer Transfer Reliability Guide 2023”의 기사에 있는 내용이 그 예이다. 또한 항상 최상단을 유지하고 있는 기자들이 구단 소속 기자들이기 때문에 구단 소속 기자의 보도만 신뢰하는 것도 악성루머들을 대처하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반대 측은 구단과 선수 개인에 대한 악성루머를 고소 조치한다고 했지만 악성루머 자체가 가짜뉴스 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여 고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가짜뉴스에 찬성하는 측은 기사를 접한 구단이나 선수 개인은 그 보도가 가짜뉴스든 아니든 기사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 그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편함을 내비치고 그래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고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악성루머와 가짜뉴스 상관없이 구단이나 선수 개인이 불편함을 내비치면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치가 가능하다.

3. 결론

축구 이적시장에서의 가짜뉴스는 구단과 선수 개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적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이적시장과 가짜뉴스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지만 항상 좋은 가짜뉴스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악성루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성루머에 대해 적중률을 통계해서 공신력 순위를 매기거나 구단 소속 기자의 보도만 신뢰, 반복되는 악성루머를 고소하는 등의 다양한 대처가 필요하다. 구단과 선수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일종의 가짜뉴스인 언론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축구 기자들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적시장에 떠도는 다양한 종류의 루머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여서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정보를 더욱 많이 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축구 이적시장의 결과에 대해 예측하며 축구 외적으로 또 하나의 재미 요소를 만들어 즐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4. 참고문헌

기자명samuel waihenya, 기사명“The Complete Summer Transfer Reliability Guide 2023, 언론사명Soccer Whizz, 최종 수정일2023년 2월1일